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석사학위논문

경제 성장과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이 종 민

경제 성장과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병 연

이 논문을 경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이 종 민

이종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위 원 장	<u>김 재 영 (인)</u>
부 위 원 장	<u>김 병 연 (인)</u>
위 원	<u>이 상 승 (인)</u>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논문에서 연구되었던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등과 더불어 특정한 주제의 선거 공약이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49개국 402회 의회 선거의 정당별 공약 자료를 요약한 CMP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정에는 여당의 선거 승리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합동 로짓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경제 성장률과 복지 공약의 비중이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여당의 복지 공약 비중이 높을수록 여당의 선거 승리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는 높은 국가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주요어 : 경제 성장, 선거 강령, 복지 공약, 민주주의, 재정 적자, 정치적 경기 순환.

학 번 : 2013-20169

목 차

1. 서 론	1
2. 기존 문헌 연구	3
3. 분석 방법	6
3.1 데이터 및 변수 설명	6
3.2 분석 모형	11
4. 분석 결과	14
4.1 소득 수준에 따른 효과	17
4.2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효과	19
5. Robustness Check	22
5.1 확률효과와 고정효과	22
5.2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효과	24
6. 결 론	27
참고 문헌	29
Abstract	33

표 목차

<표 1> 기술통계량	11
<표 2>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OECD 가입 여부에 따른 국가 분류	16
<표 3>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국가 분류	20
<표 4> 경제 성장과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확률효과와 고정효과	23
<표 5> 경제 성장, 정부의 재정 지출,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26

1. 서론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선거는 민의가 현실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가장 보편적인 매개체이며, 국민들의 가치관, 정치 경제적 상황 등 그 당시 사회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드러내주는 이벤트이다. 따라서 선거와 사회적 요인들의 상호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정치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경제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이 주제를 다루었던 논의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정치적 경기 순환 주기설(Political Business Cycle)이다. Nordhaus(1975)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이 가설은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특정한 방향의 거시 경제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 논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유권자들은 선거 전의 경제 상황에 반응하여 투표를 결정하고, 현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경제 정책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 상황을 만들고자 하므로 선거 직전 혹은 직후에 거시 경제 변수나 정부의 재정 관련 변수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론적 바탕으로 진행된 실증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뉜다. 하나는 선거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특정한 방향의 거시 경제 현상이 실재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경제적 요인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중 두 번째 주제,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 국가나 소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Brender and Drazen(2008), de Hann and Klomp(2013) 등이 비교적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 국가 수준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정부의 재정 지출 등 현 정부 임기 동안의 '경제적 성과'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 결정은 기대 효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투표를 결정한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잘

잘못을 따지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경제학적 논리가 부족하다. 그보다는 현 정부의 성과를 그들의 능력 혹은 성향에 대한 일종의 신호로 받아 들여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ogoff and Sibert, 1988 ; Rogoff, 1990).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책적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투표로 반응하는 지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 혹은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도구로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제시한 ‘경제적 성과’ 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 공약이다. 정부의 특정한 경제 정책이 자신의 기대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미래의 정책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정부가 수립되도록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권자들이 경제 정책에 따라 변하는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과거의 경제 정책이나 거시 경제 지표 등 이미 실현된 ‘경제적 성과’ 이고, 다른 하나는 각 정당이 현재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적 지향이다. 어떤 정보를 얼마나 투표에 반영할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각 유권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기대 효용을 형성하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집권 기간의 경제적 성과에 해당하는 변수 뿐 아니라, 정당의 공약을 계량화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의 선거 공약은 경제적 ·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신뢰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제도의 질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거 공약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실증 분석 모형(Brender and Drazen, 2008)에 선거 공약과 관련된 변수를¹⁾ 추가하여 경제 성장과 경제 관련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9개국 402

1) 선거 강령 관련 변수는 Comparative Manifesto Project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각 의회 선거에 참가한 정당들의 선거 강령 상 문장을 110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마다 전체 강령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며, 단위는 %로 0~100사이의 값을 갖는다.

회의 의회 선거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²⁾ 다음의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이 선거 결과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한다. 둘째, 선거가 있는 해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곧 단기적 경제 효과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한다. 셋째, 선거 강령 중 복지 지향 정도와 시장 경제 지향 정도가 선거 승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한다. 넷째, 위의 분석 결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이가 있는지, 혹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다섯째, 그 밖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 성장과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달라지게 하는 제도 변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기여에 대해 논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데이터와 연구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다. 제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데이터와 연구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제 5장에서는 4장에서 밝힌 추정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 본 논문의 한계점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주제에 대해 제언한다.

2. 기존 문헌 연구

선거 결과를 경제 상황과 연관 지어 분석한 초기의 실증 연구들에서는 주요 거시 경제 지표의 개선이나 현 정부의 재정 확장이 현직자의 재선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한 국가나 몇 개 국

2) 196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치러진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고, 국가별로 가용한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OECD 33개국 비 OECD 16개국의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의 사례연구 혹은, 소수의 선진국들을 표본으로 한 국가 간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Lewis-Beck(1988)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5개국의 선거를 각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Paldam(1991), Powell and Whitten(1993)은 각각 19개와 17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좋은’ 경제 지표가 선거에서 현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는 Fair(1978), Tufte(1978), Hibbs(1987), Alesina and Rosenthal(1995) 등의 연구에서 거시 경제 상황이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최근에는 비교적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들이 진행되어, 좀 더 다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Brender and Drazen(2008)은 74개국에서 1960~2003년 사이에 있었던 350회의 선거 자료를 분석하여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이 재선 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으며, de Hann and Klomp(2013)는 65개국에서 1975~2005년 사이에 있었던 의회 선거 자료를 통해 경제 성장이 연립 정부를 구성한 각 정당의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추정 결과를 얻었다. Gupta and Panagariya(2014)는 인도에서 경제 성장의 효과가 여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요컨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선진국의 유권자들보다 개발도상국의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³⁾

재정 정책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 Peltzman(1992)은 미국의 대선, 의회 선거, 지방 선거를 분석하여 재정 확장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Drazen and Eslava(2010) 역시 콜롬비아의 지방 선거 자

3) Inglehart et al.(2004)은 World Value Survey의 설문조사에서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비율이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

료로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 Aidt et al.(2011)은 포르투갈의 시장 선거에서 팽창적 재정 정책이 현직자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Brender(2003)은 이스라엘의 선거들을 분석하였으나 Robust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소수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Alesina, Perotti, and Tavares(1998)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19개의 OECD국가에서 치러진 선거를 표본으로 임기 동안 재정 적자를 줄인 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는 경향이 있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재정 정책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에 자연스럽게 제기된 의문은 ‘어떤 요소가 이러한 차이점을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이었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Brender and Drazen(2008)은 더미 변수를 도입하여 전체 표본을 몇 가지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한 정부를 재신임하지 않는 경향이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에서 나타났다. de Hann and Klomp(2013)는 1차적인 분석을 통해 선거 직전의 예산확장(Political budget cycle, 이하 PBC)이 존재하는 선거를 분류하였고 이 분류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각각에 대해 예산 확장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PBC가 존재하는 그룹에서는 팽창적 재정 정책이 여당을 구성한 각 정당의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한편, 유권자들의 기대 효용은 재정 수지 자체 보다는 복지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복지 관련 지출을 설명 변수로 한 연구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Pacek and Radcliff(1995)는 복지 지출 수준이 높을 때 선거 결과가 경제 상황에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기대 효용이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4) 정치적 예산 순환의 존재성에 대한 연구로는 Min Shi and Svensson(2006), Brender and Drazen(2006) 등이 있다. Min Shi and Svensson(2006)은 정부의 재정 수지가 선거를 앞두고 유의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서만 나타난다고 밝혔으며, Brender and Drazen(2005)는 소득 수준보다 민주주의의 역사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네 번 이내의 선거 국면에서는 선거 직전의 예산 확장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Armingeon and Giger(2008)은 복지 지출 감소가 선거에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지 여부가 정치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복지 정책 감축이 긴 기간에 걸쳐 조금씩 일어나거나, 사회 보장제도가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 정부가 표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Giger and Nelson(2011)은 사회 보장 정책을 감축하였을 때, 여당의 득표율 변화가 정당의 이념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추정 결과는 정부를 구성한 정당 중 종교적, 자유주의적 성격의 정당은 복지 감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득표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Brender and Drazen(2008)이 사용한 국가 간 분석 방식을 도입한 가운데, Armingeon and Giger(2008)가 제시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현 정부가 임기 동안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였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표에 반영하기에는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운용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거 기간에 어떠한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 졌는지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거별로 각 이슈들의 중요도에 대한 정보는 정당들의 선거 강령에 나타나 있으므로, 선거 강령을 통해 얻은 변수를 실증 분석 모형에 포함한다면 유권자들이 실제로 어떤 경제 정책에 반응하여 표를 던지는 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는 기존 연구들에서 선거 강령 관련 변수를 고려한 실증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본 논문 기여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분석 방법

3.1 데이터 및 변수 설명

본 논문은 196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있었던 49개국의 402회의 의회 선거 관련 자료 및 같은 기간의 정치·경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사용된 자료들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은 국가 단위의 연간 경제 데이터, 각 선거관련 데이터, 일반 정치제도 관련 데이터 등이며 이들을 목적에 따라 가공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실제 추정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종속변수인 “GPwin”는 선거 결과를 단순화 하여 대표할 수 있도록 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면 1, 지면 0을 갖는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선거 시 집권 정당에 대한 정보는 Zarate’s Political Collections의 “World Political Leaders 1945-2005”를 통하여 얻었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 백과사전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각 선거에서 정당별로 획득한 의석 수는 Comparative Manifesto Project(이하 CMP)에서 인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여당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이 속한 정당,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수상이 속한 정당을 의미한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정부의 구성 형태나 권력 구도가 복잡하여 여당이 한 정당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여당을 정의하였다. 첫째 연립 내각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정부를 구성한 정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을 여당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스위스의 연방 공화제와 같이 내각 구성의 주체가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내 최다수당을 여당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선거 전 6개월 이내에 정부 구성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을 당시의 집권당이 아닌 직전의 집권당을 여당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정의된 여당의 집권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Brender and Drazen(2008)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집권 기간의 성과를 선거에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각 국가의 정치 현실상 집권 정당을 특정할 수 없는 시기에 치러진 선거 역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선거의 승패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정당의 의석 비율에 주목하여 정의하였다. 기존의 논문들은 현직 대표자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현직자의 재선 여부나 (Alesina et al., 1998 ; Brender ,2003 ;Brender and Drazen, 2008) 현 정부의

정권 유지 여부로(Alesina et al, 2011) 선거의 승패를 가늠하였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선거 국면 및 정책 입안에 있어서 정당을 핵심적인 주체로 인식하였고, 의석 점유율에 대한 정보가 정당에 대한 대중 선호도를 평가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⁵⁾ 이러한 판단에 따라 각 선거에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이 승리한 것으로 정의하였다.⁶⁾

핵심 설명 변수 중 경제 변수는 선거 당시의 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의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자료로부터 현 정부 집권 기간 연 평균 경제 성장률(Growth_term)과 물가 상승률(Inflation_term)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 사이의 기간에 대해 평균을 구하였고, 대통령제에서는 현 대통령이 취임한 해를 시작점으로, 의원내각제에서 선거와 관계없이 수상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시작점으로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단기적인 경제 성장의 효과를 분리하여 파악하기 위해서 선거 직전 해의 경제 성장률(Growth_preelection)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선거가 치러진 해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경제 성장률 데이터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이하 WDI)와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이하 IFS)를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1960년대 서독에 대해서는 The Public Purpose의 자료를 원용하였다. 물가 상승률 역시 WDI 자료를 바탕으로,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뉴질랜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머지 국가들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⁷⁾

한편, 선거 강령 관련 변수는 CMP 자료를 사용하였다. CMP 자료는 각 의회 선거에 참가한 정당들의 선거 강령 상 문장을 110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

5) De Haan and Klomp(2013)은 선거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로 여당의 의석 수 변화를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설명변수 역시 선거 시점과 그 이전 시점의 값을 차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6) 총 402회의 선거 중 여당이 승리한 것으로 정의된 것은 240회, 패배한 것으로 정의된 것은 162회이다.

7) 각 국가별로 다른 기준의 물가 상승률을 사용한 것은 국가별로 가용한 기간이 긴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합동(pooled) 모형을 사용하였을 때, 추정결과를 다소 왜곡할 수 있으나, 고정효과를 통제할 모형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는 사라진다.

마다 전체 강령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며, 단위는 %로 0~100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 자료를 통해 선거 국면마다 특정 정책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수치화 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여당의 복지 관련 문장 비중(Welfare_GP)과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문장의 비중(Market_GP)을 핵심 변수로 사용하였다.⁸⁾ 이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변수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선거 결과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설명변수들 외에도 정치 및 제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추정식에 포함하여 통제하였다. 관련 데이터는 World bank의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이하 DPI), University of Maryland의 Polity IV dataset(이하 Polity IV), CMP 등의 출처에서 원용하였다. 먼저, 이념적 성향에 따른 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여(Jenkins, 2000; Van der Brug, 2010) 여당이 좌파인 경우와 우파인 경우에 해당하는 더미 변수(Left_GP, Right_GP)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특정 정당이 “좌파”인 것은 정당의 선거 강령 중 좌파적 범주에 해당하는 문장이 우파적 범주에 해당하는 문장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여, “우파”인 것은 그 반대의 경우로 정의된다.⁹⁾ 또한, 여당의 기존 지지도 및 정치적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거 직전 여당의 의석 점유율(Seats_GP)을 모형에 포함하였고, 선거 제도의 효과를 고려하여 다수 대표제인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Majoritarian System)를 사용하였다. 정치 제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준 및 역사를 나타내는 변수들도 포함하였는데, 민주주의 수준은 Polity IV의 polity 점수를 사용하였고, 실제 모형에서는 이 점수가 만점인 경우 1을 갖는 더미 변수(Democracy level)를 도입하였다. 민주주의 역사는 민주화 이후 15년이 지났는

8) CMP의 분류에 따르면 복지 관련 문장에 해당하는 주제는 평등, 분배적 정의, 국가의 복지 지출 확대 등이며, 시장 지향적 문장에 해당하는 주제는 자유 시장경제, 정부의 정책 건전성 등이다.

9) CMP의 분류에서 우파적 이슈에 속하는 것으로는 국방 및 안보 강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헌법 가치 수호, 강하고 안정적인 공권력, 자유 시장 경제, 인센티브 기반의 경제 정책, 보호무역 반대, 정부의 정책 건전성, 제한적 복지, 국가적 민족적 자부심, 전통적 도덕 가치, 법과 질서, 시민 의식 등이 있으며, 좌파적 이슈에 속하는 것으로는 반제국주의, 군 영향력 약화, 평화주의, 국가 간 협력, 시장 규제, 계획 경제적 요소, 보호무역 찬성,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국유화, 공적 서비스 강화, 교육 지원, 노동자 권익, 민주주의 등이 있다.

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New Democracy)이다.¹⁰⁾ 투표율(Voter's turnout)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OECD 가입국 여부를 더미 변수로(OECD) 사용하였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설명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10) Brender and Drazen(2005), Brender and Drazen(2008)에 따라, 민주화 시점은 Polity IV의 polity 점수가 음수에서 양수가 된 해로 정의한다.

표 1 > 기술통계량

	All countries		OECD		Non-OECD		Sourc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Growth_term	2.35	2.86	2.28	1.88	2.57	4.99	WDI, IFS
Growth_preelection	2.42	3.88	2.33	2.64	2.74	6.65	WDI, IFS
Inflation_term	9.81	15.70	6.61	8.90	21.20	26.13	WDI,
Balance_term	-2.54	3.84	-2.75	4.00	-1.58	2.77	IFS, OECD
Retrenchment_preelection	-0.34	2.80	-0.32	2.84	-0.43	2.62	IFS, OECD
Welfare_GP	12.27	6.95	12.57	7.11	11.19	6.25	Manifesto Project
Market_GP	4.26	4.54	4.48	4.82	3.47	3.30	Manifesto Project
Democracy level	8.28	7.57	9.25	2.27	4.85	15.17	Polity IV
Voter's turnout	75.57	13.43	77.37	12.70	69.17	14.05	IDEA
Seats_GP	42.24	13.24	42.16	12.41	42.54	15.93	DPI
Observations	402		314		88		

1. Balance_term은 임기 동안 연간 재정 수지를 평균한 값이며, Retrenchment_preelection은 선거 직전 해와 그 전 해 사이의 재정 수지 변화를 나타낸다. 두 변수 모두 GDP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였다. 한편, 정부 재정 관련 변수는 전체 표본에서 260개, OECD가입국에서 215개, 비 OECD 국가에서 45개가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Democracy level은 -10 ~ 10의 범위에서 정의되는 Polity IV의 polity 점수이며, 실제 분석에서는 이 점수가 10점 만점일 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 경우에는 0을 갖는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3.2 분석 모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고의 분석과정에서 사용된 종속 변수는 여당의 선거

승리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므로 그 값이 $\{0,1\}$ 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분 반응 모형(Binary response model)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차항의 로지스틱(logistic) 분포를 가정하는 로짓(logit) 분석이나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프로빗(probit) 분석을 사용하여 계수 값을 추정하게 된다. 기본적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_{it} = \alpha + x_{it}'\beta + z_{it}'\gamma + e_{it} \tag{3.1}$$

$$e_{it} = \mu_i + \epsilon_{it}$$

y_{it} 는 관찰되지 않는 실제 종속 변수이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당의 승리를 관측하게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x_{it} 는 i 번째 국가의 t 시점에서의 설명 변수 벡터를 나타내며, z_{it} 는 통제변수 벡터, μ_i 는 i 번째 국가에서 시점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갖는 비관측변수이다. 확률적 오차항에 해당하는 ϵ_{it} 는 평균이 0이고 계열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확률변수이다. 이 때, μ_i 와 ϵ_{it} 에 대한 가정에 따라 분석 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각 국가의 비관측변수(μ_i)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면 합동(pooled) 프로빗 혹은 합동 로짓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e_{it} 를 독립적, 동질적으로 분포하는(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확률적 오차항으로 생각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식 (3.2)는 이러한 오차항의 가정 하에서 i 번째 국가의 t 번째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조건부 확률을 구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로그 우도 함수(log-likelihood function)를 구하면 식 (3.3)과 같은 형태를 얻는다. 가정된 누적 분포 함수와 식(3.3)를 이용하여 α, β, γ 에 대한 최우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을 계산한다.

$$\begin{aligned} \Pr(g_{it}^{11} = 1) &= \Pr(y_{it} \geq 0) \\ &= \Pr(-\epsilon_{it} \leq \alpha + x_{it}'\beta + z_{it}'\gamma) = F(\alpha + x_{it}'\beta + z_{it}'\gamma)^{12)} \end{aligned} \quad (3.2)$$

$$\begin{aligned} &\ell(\alpha, \beta, \gamma; x, z, g) \\ &= \sum_{i=1}^I \sum_t^{T_i} [g_{it} \ln F(\alpha + x_{it}'\beta + z_{it}'\gamma) + (1-g_{it}) \ln \{1 - F(\alpha + x_{it}'\beta + z_{it}'\gamma)\}] \end{aligned} \quad (3.3)$$

한편, 각 국가의 비관측변수에 대해서 설명 변수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확률적 충격으로 가정하고,¹³⁾ ϵ_{it} 는 모든 계열의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¹⁴⁾ 가정하면(strong exogeneity) 확률효과(random effect) 로짓 모형 또는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추정을 위해서는 μ_i 의 분포 역시 정의되어야 하므로 보통은 추가적으로 $\mu_i \sim N(0, \sigma_u^2)$ 을 가정하고 최우추정법으로 추정한다.¹⁵⁾ 마지막으로, 각 국가의 관측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 설명 변수와 종속변수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면 고정효과(fixed effect) 로짓모형 또는 고정효과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게 되며¹⁶⁾, 역시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국가별 특성이 선거 결과와 설명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형을

11) 3장 1절의 GPwin_{it}

12) F(•)은 가정에 따른 오차항의 누적 분포 함수이며, 로지스틱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는 모두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분포이므로 마지막 등식이 성립한다.

13) $E(\mu_i * x_{it}) = 0, t = 1, 2, \dots, T$

14) $E(\epsilon_{it} * x_{is}) = 0, t = 1, 2, \dots, T, S = 1, 2, \dots, T$

15) M Woodridge, J., (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16) 오차항의 ϵ_{it} 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는 프로빗 모형에서는 일반적인 within 변환을 사용하더라도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비관측 변수 μ_i 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하는 로짓 모형에서는 within 변환을 하면 조건부확률의 계산에서 μ_i 가 사라지게 되어,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분 반응 모형은 프로빗보다는 로짓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세한 증명은 M Woodridge, J., (2010) pp. 621-622를 참고하도록 한다.

사용할 경우 관측치의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¹⁷⁾ 설명변수 중 Group의 효과를 통제하는 변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 국가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국가별 관측치가 적고 국가의 수는 비교적 많은 데이터의 성격 상 고정효과 로짓 모형의 최우추정량은 일치 추정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¹⁸⁾ 따라서 우선 합동 로짓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추정 결과를 산출한 후, 확률효과 로짓 모형과 고정효과를 가정한 추정식을 통해 강건성(robustness)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¹⁹⁾

본 논문의 실증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²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표본에 대해 합동 로짓 분석을 진행하여 일반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국가의 소득 수준이나 민주주의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OECD가입국 여부를 기준으로 혹은 민주주의 지수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동일한 추정식을 추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추정된 계수 값과 그 유의성이 오차항에 대한 가정과 분석 모형에 따라, 추가적인 통제 변수의 도입에 따라, 관측치의 시계열 길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는 Robustness 검증을 진행하였다.

4. 분석 결과

<표 2>는 식 (3.3)의 추정 결과이며, 합동 로짓 모형으로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정당의 선거 강령 상 경제 정책 지향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17) 고정효과 로짓 분석의 경우, 관측된 종속 변수가 모든 시점에서 1의 값을 가지거나, 모든 시점에서 0의 값을 갖는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18) Neyman and Scott(1948), "Consistent estimation from partially consistent observations". Lancaster(2000), "The incidental parameter problem since 1948".

19)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여도 계수 값 및 유의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

20) 실증 분석 방법은 Brender and Drazen(2008)을 상당 부분 참고하였다.

것이다.²¹⁾ 표 안의 숫자는 각 설명변수가 여당의 승리 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값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계수 값에 대한 p-value이다.²²⁾ 표의 1열과 2열은 그룹을 나누지 않은 전체 표본에서의 추정 결과이다. 우선 여러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의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이 여당의 승리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권하는 동안 빠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정권 하에서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경제 성장을 현 정부의 역량에 대한 중요한 척도로 여기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반면, 선거 직전 해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계수 값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집권 기간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과는 달리 선거 직전의 단기적인 경제 성장은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당이 복지 정책을 지향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승리 확률이 높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향후 약속된 복지 지출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향후 유권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만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집권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복지 정책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 시민들의 기대효용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그 밖에 투표율이 높을 때 여당의 승리 확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이것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당의 기존 의석 수는 현 선거에서의 승리 확률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²³⁾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선거 제도, 민주주의 수준, 민주주의 역사 등도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1)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른 효과는 제 5장 2절에서 논의한다.

22) 계수 값은 식 (3.3)에 대한 일반적인 최우 추정량이며, p-value는 Huber/White/Sandwich 추정량의 분산을 사용하여 구한 robust 표준 오차를 바탕으로 계산한 값이다.

23) 본 연구에서 원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하면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설정하였음을 기억하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OECD 가입 여부에 따른 국가 분류

Dependent variable : GPwin	All countries		OECD		Non-OECD	
	(1)	(2)	(3)	(4)	(5)	(6)
Growth_term	0.1830** (0.034)	0.1857** (0.032)	0.3639*** (0.000)	0.3737*** (0.000)	0.0470 (0.678)	0.0302 (0.792)
Growth_preelection	0.0047 (0.924)	0.0034 (0.944)	-0.0137 (0.814)	-0.0169 (0.774)	0.0695 (0.346)	0.0745 (0.329)
Inflation_term	0.0120 (0.316)	0.0108 (0.369)	-0.0246 (0.193)	-0.0259 (0.184)	0.0122 (0.420)	0.0117 (0.478)
Welfare_GP	0.0385** (0.046)		0.0470* (0.055)		0.0025 (0.957)	
Left_GP	0.2100 (0.404)		0.1267 (0.697)		0.0520 (0.918)	
Market_GP		-0.0394 (0.124)		-0.0254 (0.372)		-0.1152 (0.144)
Right_GP		-0.2429 (0.330)		-0.2499 (0.424)		0.1953 (0.698)
OECD	0.1871 (0.594)	0.2734 (0.431)				
Majoritarian system	0.2647 (0.396)	0.2239 (0.472)	0.0922 (0.826)	0.0608 (0.885)	-0.3800 (0.551)	-0.2720 (0.645)
Democracy level	-0.0226 (0.930)	-0.0439 (0.867)	-0.4085 (0.214)	-0.4424 (0.181)	0.6281 (0.235)	0.7893 (0.144)
New democracy	-0.4059 (0.251)	-0.4294 (0.228)	-0.2522 (0.621)	-0.3143 (0.549)	-0.3678 (0.521)	-0.3491 (0.549)
Voter's turnout	0.0143 (0.146)	0.0154 (0.121)	0.0176 (0.180)	0.0170 (0.189)	0.0278 (0.165)	0.0309 (0.144)
Seats_GP	0.0357*** (0.000)	0.0347*** (0.000)	0.0500*** (0.000)	0.0496*** (0.000)	0.0246 (0.102)	0.0232 (0.112)
Constant	-3.5690*** (0.000)	-2.7695*** (0.001)	-4.0912*** (0.000)	-3.1146*** (0.003)	-3.4576** (0.043)	-3.3128* (0.056)
Pseudo R ²	0.1042	0.0989	0.1486	0.1374	0.0882	0.1061
Wald chi ²	39.46	39.07	46.93	45.41	9.69	12.04
p($\chi^2 > \text{chi}^2$)	0.0000	0.0001	0.0000	0.0000	0.4679	0.2822
Observations	402	402	314	314	88	88

1. 표 안의 숫자는 로짓 분석을 통해 추정된 각 변수의 계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통해 계산된 p-value이다.

- * : 10% 수준에서 유의함
- ** : 5% 수준에서 유의함
- *** : 1% 수준에서 유의함

4.1 소득 수준에 따른 효과

이 절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가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 OECD 가입 여부로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별로 설명변수들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²⁴⁾ <표 2>의 3열과 4열은 선진국에서 열린 선거에서 각 설명변수의 계수 값을 추정한 것이고, 5열과 6열은 개발도상국에서 열린 선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경제 성장률과 여당의 승리 확률과의 관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계수 값과 유의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선진국에서는 임기 동안의 평균적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증가 할 때 여당의 승리 확률이 약 8~9% 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효과가 약 1% 포인트 미만으로 비교적 약하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도 못하였다.²⁵⁾ 이것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다소 의아한 결과이다.²⁶⁾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을 주로 다루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주로 사회주의를 경험하였던 유럽 국가들이기 때문에 표본 선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²⁷⁾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소득 수준이 아닌 제도의 효과에 따라 경제 성장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수준 및 역사,

24)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전체 402 개의 표본 중 OECD 가입국의 선거에 대한 관측치가 32개국에서 314개 이고, 비 OECD 국가에서 치러진 선거에 대한 관측치는 27개국에서 88개이다.

25) 확률을 이용한 계수 값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표본에서 여당이 승리한 선거의 비율을 다른 조건이 없을 때의 승리 확률(k)로 생각하고 추정된 계수 값(b)을 대입하여 그 효과를 계산하였다. $b \cdot k \cdot (1 - k)$

26) G. Bingham Powell Jr. and Guy D. Whitten (1993), Paldam (1991), Kaare Strøm and Seymour M. Lipset (1984) Lewis-Beck (1988) 등은 각국의 사례 연구 혹은 선택된 몇 개국의 선거에 대한 계량 분석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이 재선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통계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Brender and Drazen(2008), Gupta and Panagariya (2014) 등의 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 성장이 재선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전개되었다.

27) 선거의 승패를 정의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 3장 1절에 있다.

정치 체제, 정치 제도의 질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소득 수준 만으로 국가를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추정 결과를 왜곡하였을 수 있다. 민주주의 수준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 밖의 제도적 효과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한편, 높은 물가상승률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효과도 개발도상국 보다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유권자들이 복지 공약에 반응하는 정도 역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표 2>의 3열에서 “여당의 복지 지향성”의 계수 값은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반면 5열에서는 계수 값이 0에 가깝고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선진국의 시민들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복지 지향적 정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복지 공약이 유권자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국가 경제가 복지 재원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출의 확대와 관련된 공약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가 많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관측 가능한 설명 변수들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 이행을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이행 초기 정치적 역학에 의한 합당 및 분당, 신당 출현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추정 결과에서 모형 자체의 설명력 및 유의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²⁸⁾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선진국에서 복지 공약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도 가늠할 수 있다. 계수 값이 약 0.05로 추정되었고, 이것은 여당의 복지 공약 비중이 1% 포인트 늘어날 때, 선거 승리 확률이 1.1% 포인트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여당의 시장 지향성이 강할 때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28) 개발도상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정에서 모형의 설명력 및 유의성이 낮은 것은 표본 수가 적고 설명변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검정력(power)이 낮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4.2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효과

이 절에서는 국가의 분류를 OECD 가입 여부가 아닌 민주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추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으로는 Polity IV의 polity 점수를 사용하였다. Polity점수는 민주주의적 요소 10가지 중 해당 사항의 개수와 전체주의적 요소 10가지 중 해당사항의 개수 간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점수가 10점 만점인 경우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로, 만점이 아닌 경우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하였다.²⁹⁾ <표 3>의 1열, 2열, 5열, 6열은 앞 절에서 사용한 추정식을 민주주의 수준별로 분류된 표본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현 여당의 집권 기간 경제 성장률은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만 여당의 승리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당의 복지 공약 비중이 높을수록 승리 확률이 증가하는 현상 역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만 나타났다.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복지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정치적으로 선진적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을 때 정책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5열에서 MarketGP의 계수가 유의하게 추정된 것으로 보아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여당의 시장 지향성이 강할 때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계수 값은 -0.12 정도로 시장 지향적 공약의 비중이 1% 늘어날 때 선거에서 패배할 확률이 약 3%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 지수로 대표되는 정치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권자들이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29)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전체 402 개의 표본 중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된 관측치가 28개국에서 281개 이고,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에 대한 관측치는 24개국에서 101개이다. 20개의 관측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지수가 정의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3 >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국가 분류

Dependent variable : GPwin	High Democracy Level				Low Democracy Level		
	(1)	(2)	(3)	(4)	(5)	(6)	(7)
Growth_term	0.3827*** (0.001)	0.4009*** (0.001)	0.3949* (0.051)	0.3806*** (0.001)	-0.0014 (0.990)	-0.0061 (0.955)	-0.0077 (0.944)
Growth_preelection	-0.0185 (0.808)	-0.0246 (0.745)	-0.0184 (0.809)	-0.0193 (0.800)	0.0962 (0.179)	0.0942 (0.191)	0.0952 (0.194)
Inflation_term	-0.0497 (0.130)	-0.0501 (0.134)	-0.0494 (0.138)	-0.0524 (0.102)	0.0092 (0.505)	0.0099 (0.498)	0.0100 (0.495)
Welfare_GP	0.0455* (0.079)		0.0455* (0.079)	0.1347 (0.262)	-0.0028 (0.950)		
Left_GP	0.2164 (0.534)		0.2177 (0.535)	0.2388 (0.494)	0.4628 (0.387)		
Market_GP		-0.0239 (0.459)				-0.1249* (0.069)	-0.1343 (0.160)
Right_GP		-0.3254 (0.327)				-0.1066 (0.833)	-0.1005 (0.842)
OECD * Growth_term			-0.0138 (0.950)				
OECD * Market_GP				-0.0924 (0.454)			
OECD * Welfare_GP							0.0218 (0.861)
Voter's turnout	0.0215 (0.114)	0.0206 (0.125)	0.0215 (0.116)	0.0215 (0.113)	0.0237 (0.288)	0.0214 (0.346)	0.0210 (0.356)
Seats_GP	0.0383*** (0.007)	0.0375*** (0.007)	0.0383*** (0.007)	0.0387*** (0.006)	0.0383** (0.011)	0.0362** (0.013)	0.0362** (0.013)
Constant	-4.2270*** (0.001)	-3.4438*** (0.007)	-4.2753*** (0.006)	-4.9515*** (0.002)	-3.6669** (0.040)	-2.8448* (0.086)	-2.7988* (0.095)
Pseudo R ²	0.1480	0.1365	0.1480	0.1494	0.1152	0.1346	0.1348
Wald chi ²	40.55	38.13	42.06	41.41	12.23	16.75	17.23
p($\chi^2 > \text{chi}^2$)	0.0000	0.0000	0.0000	0.0000	0.2701	0.0801	0.1012
Observations	281	281	281	281	101	101	101

1. 표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OECD, Majoritarian system, New democracy 등이 통제변수로 포함됨.

* : 10% 수준에서 유의함

** : 5% 수준에서 유의함

*** : 1% 수준에서 유의함

그 밖에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투표율 제고 효과가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여당의 기존 의석수는 민주주의 수준에 관계없이 여당의 승리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앞 절과 비교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난 효과는 앞 절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추정된 효과와 일치하며,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한 분석은 앞 절에서 OECD에 가입되지 않은 집단에 대한 분석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수준 또한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Acemoglu et al., 2008),³⁰⁾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분류 방법을 통해 각각 도출된 결과만으로는 경제 성장과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 간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표 2>의 3,4,7열은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효과와 소득 수준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기 위한 추정식으로,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각 그룹의 분석에서 OECD 가입 여부에 따라 추정되는 계수 값이 달라지는 지 확인해본 것이다. 3열은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계수 값이 OECD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지 검정하기 위한 것이며, 4열은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WelfareGP의 계수 값에 대해 7열은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MarketGP의 계수 값에 대해 동일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세 추정식 모두에서 OECD 가입 여부는 계수 값을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³¹⁾ 즉,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경제 성장률과 복지 공약의 비중이 증가할 때, 여당의 승리 확률이 높아지고,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시장 지향적 공약의 비중이 증가할 때 여당의 승리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

30) 민주주의 지수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382개의 표본 중 소득 수준이 높으면서 민주주의 수준도 높은 경우는 259개, 소득 수준이 낮으나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경우는 22개, 소득 수준은 높지만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경우는 39개, 소득 수준이 낮고 민주주의 수준도 낮은 경우는 62개이다.

31) 4열의 추정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비 OECD 국가에서 복지 공약 비중의 계수 값이 OECD 가입국의 그것보다 상당히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 각 그룹의 관측치 개수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259 : 22)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다.

이다. 이것은 소득 수준보다는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경제 성장과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권자들이 여당의 복지 공약에 투표로 반응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5. Robustness check

5.1 확률효과와 고정효과

3장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각 국가의 관측되지 않는 변수가 추정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추정식에 포함시키지 않은 각국의 고유한 특성이 설명 변수와 종속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일 경우 합동(pooled)모형을 바탕으로 계산된 추정량은 일치 추정량이 되지 않는다(Yachew and Griliches, 1984).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절에서는 국가별 비관측변수를 고려한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을 도입하여 4장에서 이루어진 실증 분석 결과가 적절한 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표 4>의 1,2,3열은 4.2절에서 분류된 각 그룹에서 고정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의 계수 값 및 유의성을 보여준다. 우선, 복지 공약과 경제 성장률의 효과는 고정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계수 값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현 정부 임기 동안의 경제 성장률과 선거 강령 상 복지 공약의 비중이 여당의 승리 확률과 여전히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한편,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여당의 시장 지향성의 계수 값은 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표 4>의 4,5,6열에 나타나 있는 확률효과를 가정 한 로짓 분석의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경제 성장률과 여당의

정책적 지향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오차 항에 대한 가정이나 분석 모형에 대해 Robust 함을 확인하였다.

표 4 > 경제 성장과 선거 공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확률효과와 고정효과

Dependent variable : GPwin	Fixed effect			Random effect		
	All countries	High democracy	Low democracy	All countries	High democracy	Low democracy
Growth_term	0.3386*** (0.000)	0.5693*** (0.000)	0.1044 (0.422)	0.1957** (0.011)	0.4037*** (0.001)	-0.0061 (0.953)
Growth_preelection	-0.0163 (0.778)	-0.0347 (0.692)	0.0485 (0.608)	0.0040 (0.938)	-0.0129 (0.876)	0.0942 (0.198)
Inflation_term	0.0291 (0.035)	0.0265 (0.516)	0.0105 (0.509)	0.0118 (0.251)	-0.0445 (0.226)	0.0099 (0.437)
Welfare_GP	0.0414* (0.076)	0.0605** (0.037)		0.0377* (0.056)	0.0487* (0.053)	
Left_GP	-0.0724 (0.807)	-0.3324 (0.389)		0.1889 (0.468)	0.1320 (0.710)	
Market_GP			-0.1224 (0.193)			-0.1249 (0.128)
Right_GP			0.0971 (0.875)			-0.1066 (0.835)
Voter's turnout	-0.0174 (0.459)	-0.0710** (0.037)	0.0714 (0.106)	0.0170 (0.102)	0.0210 (0.154)	0.0214 (0.347)
Seats_GP	0.0784*** (0.000)	0.1234*** (0.000)	0.0250 (0.233)	0.0428*** (0.000)	0.0538** (0.011)	0.0362** (0.013)
Constant				-3.9893*** (0.000)	-4.7928*** (0.001)	-2.8455* (0.086)
Constant	65.73	70.14	10.89	37.66	33.48	14.93
$p(\chi^2 > \chi^2)$	0.0000	0.0000	0.2832	0.0000	0.0002	0.1346
Observations	385	279	82	402	281	101

1. 표 안의 숫자는 로짓 분석을 통해 추정된 각 변수의 계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통해 계산된 p-value.

2. 표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OECD, Majoritarian system, New democracy 등이 통제변수로 포함됨.

* : 10% 수준에서 유의함

** : 5% 수준에서 유의함

*** : 1% 수준에서 유의함

5.2 정부의 재정 변수를 포함한 모형

전통적인 정치적 경기순환주기설(Political Business Cycle)에 따르면, 정부는 선거 직전 재정 확장을 통해 재선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Nordhaus, 1975 ; Rogoff, 1990). 그 전제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 등이 선거에서 현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2 장에서 소개했듯이 이에 대한 실증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PBC 이론을 뒷받침할만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거나(Aidt et al., 2011; de Haan and Klomp, 2013) 반대로 재임 기간 정부의 재정수지가 개선되었을 때, 현직자의 재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Brender and Drazen, 2008 ; Drazen and Eslava, 2010). 이렇듯,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수지는 선거 결과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예산 관리 행태는 유권자들이 재정 지출에 관련된 여당의 공약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절에서는 정부의 예산 효과를 포함하였을 때, 4장의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부의 예산 관련 변수는 주로 1980년대 이후에 대해서만 자료가 존재하며,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와, OECD(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의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용한 시계열이 짧아짐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은 49개국 402개에서 46개국 260개로 줄어들었다.³²⁾ 본 절에서 추가된 설명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의 재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연간 재정 수지의 평균 값(Balance_term)을 사용하였고, 선거 직전의 단기적 확장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선거 직전 해와 그 전 해 사이의 재정 수지 변화

32)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경우 188개, 민주주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64개, 정의되지 않는 경우 8개로 구성되어 있다.

(Retrenchment_preelection)를 사용하였다.³³⁾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재정 정책과 여당의 선거 강령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 관련 변수와 선거 강령 관련 변수의 교호 작용 항을 추가하였다.

<표 5>의 1,2,3,4열은 정부 재정 관련 각 변수가 포함되었을 때,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경제 성장률과 복지 공약 비중이 여당의 승리 확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본 추정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각 식에서 두 변수의 계수 값은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출 자체는 선거 결과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5,6,7열에 나타나 있는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분석 역시 기존 분석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여당의 시장 지향성이 높을 때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다. 4장의 추정 결과에서 달라진 점은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현 정부 임기 동안의 경제 성장이 여당의 승리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비교적 최근의 표본을 사용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 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경제 성장률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3) 두 변수는 모두 GDP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였다.

표 5 > 경제 성장, 정부의 재정 지출, 선거 공약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Dependent variable : GPwin	High Democracy Level				Low Democracy Level		
	(1)	(2)	(3)	(4)	(5)	(6)	(7)
Growth_term	0.3365** (0.029)	0.3646** (0.018)	0.3372** (0.028)	0.4956** (0.015)	0.3064* (0.065)	0.3525** (0.037)	0.2909* (0.068)
Growth_preelection	-0.0029 (0.976)	0.0109 (0.914)	-0.0033 (0.973)	0.0067 (0.960)	0.0327 (0.782)	-0.0049 (0.969)	0.0443 (0.727)
Inflation_term	-0.0045 (0.923)	-0.0097 (0.838)	-0.0049 (0.917)	0.1659** (0.046)	0.0649* (0.053)	0.0780** (0.031)	0.0624* (0.051)
Welfare_GP	0.0579** (0.047)	0.0703** (0.015)	0.0584* (0.064)	0.1334*** (0.005)			
Left_GP	0.2304 (0.580)	0.2714 (0.514)	0.2344 (0.580)	-0.6903 (0.197)			
Market_GP					-0.2959* (0.072)	-0.2783* (0.088)	-0.3347 (0.126)
Right_GP					-0.5049 (0.541)	-0.5645 (0.487)	-0.5103 (0.531)
Balance_term	0.0502 (0.296)		0.0451 (0.666)	-0.0013 (0.986)	0.0724 (0.554)		0.1277 (0.583)
Retrenchment_preelection		-0.0602 (0.308)				0.1862 (0.303)	
Balance_term * Welfare_GP			0.0004 (0.953)				
Balance_term * Market_GP							-0.0250 (0.743)
Voter's turnout	0.0187 (0.251)	0.0193 (0.252)	0.0186 (0.252)	-0.0983 (0.113)	0.0433 (0.185)	0.0423 (0.172)	0.0440 (0.183)
Seats_GP	0.0265* (0.096)	0.0219 (0.159)	0.0267* (0.093)	0.1381*** (0.000)	0.0437** (0.017)	0.0415** (0.027)	0.0435** (0.017)
Constant	-4.1214*** (0.009)	-4.2353*** (0.008)	-4.1324*** (0.009)		-5.3320** (0.022)	-5.3925** (0.014)	-5.2325** (0.025)
Pseudo R ²	0.1247	0.1228	0.1247		0.2554	0.2633	
Wald(LR) chi ²	27.63	26.01	27.65	54.00	18.15	17.53	15.78
p($\chi^2 > \text{chi}^2$)	0.0037	0.0065	0.0062	0.0000	0.0781	0.0931	0.0716
Observations	188	188	188	182	64	64	64

참고 : 'Balance_term'은 현 정부 임기 동안의 평균적인 정부 재정 수지이며, 'Retrenchment_preelection'은 선거가 있는 해와 선거 직전 해의 재정 수지 차이를 나타낸다. (4)는 고정효과를 통제한 추정식이다.

- * : 10% 수준에서 유의함
- ** : 5% 수준에서 유의함
- *** : 1% 수준에서 유의함

6.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 결과를 196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있었던 49개국 402회의 의회 선거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선거와 재정 정책 간의 관계를 정치권과 유권자 사이의 일종의 시그널링 게임(Signaling game)으로 파악한 연구들(Rogoff and Sibert, 1988 ; Rogoff, 1990)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정당의 선거 공약이 유효한 ‘신호’가 될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Brender and Drazen(2008)에서 사용한 합동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정부의 재정 정책, 선거 공약 등이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정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발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 동안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은 여당의 선거 승리 확률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 보다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현 정부의 임기 동안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여당의 선거 승리 확률은 약 8~10% 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물가 상승률과 선거 직전 해의 경제 성장률은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당의 강령 중 복지 지향적 공약의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을 통해 복지 지향적 정부를 선택하였을 때, 유권자들의 기대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당이 복지 공약의 비중을 1% 포인트 늘리면,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은 1~1.5% 포인트 증가한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정치적으로 선진적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국가에서는 여당의 강령 중 시장 지향적 공약의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낮아진다. 여당의 강령에서 시장 지향적 문장이 1% 포인트 늘어나면, 선거에서 패배할 확률은 약

3% 포인트 증가한다. 끝으로 정부의 재정 수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적 예산 순환 가설의 논리와 배치되는 결과인데,³⁴⁾ 다른 결과들과 연계하여 해석해 보면, 유권자들이 과거의 재정 정책을 분석하기보다는 선거 국면에서 제시한 정책적 이슈들에 더 크게 반응하며,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공약 이행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 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주제와 관련된 실증 연구들은 어떤 국가들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상이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국가에서 긴 기간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표본이 대부분 유럽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고소득 국가, 고도로 민주화된 국가의 자료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선택 편의를 감수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선거 공약 관련 변수를 도입하여 선거 결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진행하였고, 특정한 정책 공약이 효과적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유럽권 국가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정당들의 선거 공약을 요약한 데이터셋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제도를 나타내는 정성적 변수들을 계량화하여 함께 분석한다면, 특정한 선거 공약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조건 하에서 유효한 지에 대해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4) 실제로 많은 실증 연구 결과들이 정부의 재정 확장이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Peltzman(1992), Alesina, Perotti, and Tavares (1998), Brender and Drazen(2008), Drazen and Eslava(2010)를 참고 하도록 한다.

참고 문헌

Acemoglu, D., et al. (2008), “Income and democracy”, *American Economic Review*, 98(3): 808–842.

Aidt, T. S., Veiga, F. J., and Goncalves Veiga, L., (2011), “Election results and opportunistic policies: a new test of the rational political business cycle model.” *Public Choice*, 148: 21-44.

Alesina, A., and Rosenthal, H., (1995),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1915–1988”, *Partisan Politics, Divided Government, and the Economy*, Political Economy of Institutions and Decisions se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esina, A., Roberto P., and Jose T.. (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Adjustment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7-248.

Alesina, A., Carloni D., Lecce, G., (2011),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large fiscal adjustmen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7655.

Annika, Lacewell, Lehmann, A., Henrike, Merz, P., Promise, O., Regel, N., Schultze, Volkens, Werner, S., (2013), “The Manifesto Data Collection”, *Manifesto Project (MRG/CMP/MARPOR)*, Version 2014a.

Armingeon, K., & Giger, N., (2008), “Conditional punish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welfare state retrenchment in OECD nations, 1980-2003”, *West European Politics*, 31(3), 558–580.

Brender, A., (2003), “The Effect of Fiscal Performance on Local Government Election Results in Israel:1989-998.”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9-0): 2187-2205.

Brender, A., and Drazen, A., (2005), "Political Budget Cycles in New versus Established Democracie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2(7): 1271-5.

Brender, A., and Drazen, A., (2008), "How do budget deficits and economic growth affect reelection prospects? Evidence from a large cross-section of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2203-2220.

De Haan, J., and Klomp, J.,(2013), "Political budget cycles and election outcomes", *Public Choice*, 157: 245-267.

Drazen, A., and Eslava, M., (2010), "Electoral manipulation via voter-friendly spending: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2: 39-52.

Fair, R.C., (1978), "The Effect of Economic Events on Votes for Presiden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2): 159-173.

Giger, N., & Nelson, M., (2011),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welfare state retrenchment: Blame avoidance or credit claiming in the era of permanent austerit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0(1): 1-23.

Gupta, P., and Panagariya, A., (2014), "Growth and Election Outcomes in a Developing Country", *Economics and Politics*, 26(2): 332-354.

Hibbs, D. A., (1977), "Political Parties and Macroeconomic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4): 1467-1487.

Hibbs, D. A., (1987),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macroeconomics and electoral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et al., (2004), *World Values Surveys and European Values*

Surveys, 1999-2001.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Jenkins, J.A., (2000), "Examining the robustness of ideological voting: evidence from the confederate house of representativ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4): 811-822

Lewis-Beck, M. S., (1988), *Economics and elections: the major western democraci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Lewis-Beck, M. S., & Stegmaier, M.,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183-219

M Woodridge, J., (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Neyman, J., Scott, E.L., (1948), "Consistent estimation from partially consistent observations", *Econometrica*, 16: 1-32.

Nordhaus, W.D., (1975),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2): 169-190.

Pacek, A. C., & Radcliff, B., (1995), Economic voting and the welfare state: a cross-national analysis, *The journal of Politics*, 57(01): 44-61.

Paldam, M., (1991), "How robust is the vote function? A study of seventeen nations over four decades", *Economics and Politics: The Calculus of Support*,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pp. 9-31.

Peltzman, S., (1992), "Voters as Fiscal Conservativ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327-61.

Powell, G. B., & G. D. Whitten., (1993), "A cross-national analysis of economic voting: taking account of the political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391-414.

Rogoff, K., & Sibert, A., (1988). "Elections and Macroeconomic Policy Cycl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5(1): 1-6.

Rogoff, K., (1990) "Equilibrium Political Budget Cycles", *American Economic Review*, 80: 21-36.

Shi, M., & Svensson, J., (2006), "Political budget cycles: do they differ across countries and wh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 1367-1389.

Strom, K. & M. L. Seymour., (1984), *Macroeconomics and Macropolitics: The Electoral Performance of Democratic Governments*.

Tufte, E. R., (1978).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Van der Brug, W., (2010), "Structural and Ideological Voting in Age Cohorts", *West European Politics*, 33(3): 586-607

Zarate, Roberto O., (2013), "Zarate's Political Collections (ZPC)", 1996-2013.

Abstract

Economic Growth, Manifestos, and Electoral Outcomes

Lee Jongmin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economic factors which effect on electoral outcomes. Employing the CMP data about 402 parliamentary election of 49 countries, I examine whether 'good' macroeconomic outcomes during the term in office raise a government party's winning prospect and whether a specific public commitment of a government party can help win the election. Since the dependent variable is a binary variable receiving the value 1 if an incumbent party win the election, pooled logit model is utilized. I find that economic growth over the term in offic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winning of government party and that government party's public commitment about welfare is effective in the electoral campaigns. This effect is more obvious in countries with high income level(high democracy level) than in countries with low income level(low democracy level).

Keywords : Economic growth, Manifesto, Welfare state, Democracy, Fiscal balance, Political Business Cycle.

Student Number : 2013-20169